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게 하나님 은혜죠

-2003년 4월 4일 조선일보-

김미애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방직 공장에 다니며 야간여상을 졸업했다. 쇼핑센터와 초밥집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해 말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김미애씨는 판·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청소년 선도를 위해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젊은 시절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미애씨는 그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 기억 하나

자극암 말기로 핏기 하나 없이 누워만 계셨던 어머니 기억이 나요. 중학교 2학년 때였죠. 하소연할 데가 필요했어요. 어머니를 리어카에 싣고 교회로 나갔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 기억 둘

고교시절 아버지 사업의 실패로 저는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마다 동네를 돌며 차비 빌리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1학년때 우리반 애들이 '불우이웃 돕기'로 거둔 성금을 내게 주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조회시간에 교장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셨죠. 제가 그리웠던 건 따뜻한 말 한마디였고, 살가운 관심이었는데...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전 그 길로 학교를 그만둘 결심을 했어요.

◆ 기억 셋

방직공장에 취직해 허드렛일을 했어요. 하루 8시간 고박 일했는데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였죠. 밤엔 여상에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갔죠.

◆ 기억 넷

28살에 동아대 법대에 입학해 고시공부를 시작했어요 도서관 창가에 자리를 정해두고 앉았는데 창가에 햇살이 비치는데, 햇살이 나만 비추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냥 울었죠. 제 자리엔 항상 성경책이 함께 했구요.

◆ 꿈 하나

저처럼 힘들게 지낸 아이들을 돕는 게 제 꿈이에요. 딱딱한 말로 하면 청소년 선도. 1년동안 한 학생에게 매달 조금씩 후원해 준 적이 있는데, 미리 약속 했어요. 절대 학생에게 제 이름을 밝히지 말 것. 가끔씩 집에 들러 먼 발치에서 학생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 지켜봤는데, 어릴 때 생각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다. 그녀가 믿는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했을 때, 수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손을 뻗쳐 준 유일한 '친구' 라고 했다. 인간의 알팍한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숙제를 그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다.



◀추억 생각하기▶ 입으로 부는 모기약 '에스킬러'

입으로 불어 나오게 했던 스프레이 모기약. 모기가 천정에 붙으면 목숨걸고 고개를 뒤로 젖혀 불었죠. 모기약이 대롱을 타고 입속에 들어오는 것은 부는 타이밍과 입김의 강약에 좌우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기 잡다 사람먼저 잡게 될 흥기였습니다. 그래도 파리, 모기를 잡아야한다는 위생관념만은 지금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15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4월 13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사흘간의 슬픔



당신이 기도하러 올라가실때
우리는 그것이 이별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겨주실때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말없는 입맞춤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없이 지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그 슬픈 울음소리에
당신을 부인하던 베드로
당신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길
당신을 따르던 이들은
땀 한 방울로 물들여진 길만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소리는
우리를 차라리 귀머거리가 되었으면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은 십자가는
생명의 근원인 당신의 말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녁 놀이지며 피로 물들여진 당신의 모습을
당신을 따르던 이들의 눈물과 울부짖음과 함께
붉게 물들여진 저녁 놀 속으로 잠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치고
오래 산 사람이 적고
유명해진 사람은 더욱 적다
너는 존경받으며 장수하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일에 갈등이 있다
그러나 포기하려는 갈등보다
도전에서 오는 갈등이
더 멋있다
갈등을 멋있게 하거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2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8(종려주일)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주일학교
어린이시간 Sunday School		다 같이
찬송 Hymn	141장	정희자 권사
기도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 19:28-40	나무심자가성가대
성가대 찬양 Choir		김성국 목사
설교 Sermon	'나귀타고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찬송 Hymn	139장	인도자
헌금기도 Offering Pray		다 같이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이주의, 박경주 집사 가정, 2절:다같이)	김성국 목사
축도 Benediction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4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6	정덕수	김종우	차명은, 안희진	사카시다 키쿠오, 박일영
13	정희자	김진근	이주익, 박경주	원성호, 유종옥
20	지찬영	마경춘	고성일, 김봉희	윤형권, 이광희
27	최재학	민광호	주차안내부	이근평, 이재운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1. 교우소식
 - *경덕현 집사. 8년만의 한국나들이를 위해 어제(토)출국. 그때 그 자리들이 많이 새로워졌을 겁니다. 눈에 마음에 많이 담아오세요
 - *등록하심을 축하합니다
- 유병민, 한상숙 집사(모세.신영) ☎627-1831 ✉ 57A Penney Ave. Mt Roskill
2.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주일인 종려주일(Palm Sunday)로 고난주간도 시작됩니다
3. 성금요연합예배(갈보리, 영락, 오성, 온누리, 은혜와진리, 임마누엘, 제일, 주님의교회) 심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주님의 고난이 감각에 다가오는 예배입니다.
 - <일시> 18일(성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본당
 - *금주 금요새벽기도회는 부활주일 연합새벽예배 혹은 Sun Rise로 옮겨드립니다
 -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는 U-BIX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주일은 부활절입니다.
 - 1)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새벽 5:30 온누리교회(오uckland교회연합회)
 - 2) 부활절 새벽Sun Rise 예배(새벽연합예배에 거리상 못참석하는 갈보리교우를 위한 예배)
 - <장소> MT Eden 정상 <시간> 부활절 새벽 5:30 (안내문참조)
 - *우천시 우산쓰고 예배 *두통하게 입은 옷과 개인용 손전등 지참을 바랍니다
5. '부활절 헌금을 위한 성경쓰기 봉헌'
 - *그동안 정성스레 쓰신 성경을 잘 재분하여 부활주일 봉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깃든 소중한 부활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6. '믿음의 어머니'기도회 <일시> 15일 오후 1시.교회
7. 익투스 남성중창단초청 고난주간 특별 수요찬양예배
 - <일시> 16일(수) 저녁7:30. 남성들의 화음타고 들려지는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 청년부 수련회
 - *일시: 4월 15(화)-17(목)
 - *장소: Pacific Park Christian Holiday camp. 1110 Papamoa Beach Road, Papamoa (Tauranga)

◀착한 시인▶ 산이 날 에워싸고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짙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몇일 전부터 소풍가는 날처럼
설레었던 Tracking. 김밥하나
들고 나섰습니다. 햇빛 가리워
주는 나무사이로 난 산길에는
흙과 나무 뿐이었는데 그들은
참 맑고 고른 숨을 내쉬고 있
었습니다. 많은 것을 지닌 나는
숨이 찬데...
산처럼 살고 싶어 가만 보니
피우던 제 몸 떨구어 키워준
산에게 기꺼이 되돌려 주는 나
무들이 있었습니다.